

# U-2기의 전설과 공적(하)

- 불운의 조종사 파워즈 스토리 -

## ■ 적지에서 생포당해

U-2기와 파워즈라고 하면 좀 나이 든 분들은 곧 “아 그사람!”하고 기억해 낼 것이다. 프란시스 게일리 파워즈 대위, 그는 만일 U-2기의 승무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무수한 조종사의 한사람으로 일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국 공군의 우수한 조종사였고 U-2기 승무원으로 뽑혔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군사·외교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1960년 5월 중순 미·영·소의 3국 수뇌가 모인 자리에서 소련 대표 흐루시초프 제1서기가 U-2기의 소련 영공 침범을 꺼냈을 때 “미국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댄 것은 조종사가 죽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문제의 침범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파워즈 대위가 탈출 후 낙하산으로 내려 소련 당국에 체포 된 사진을 제시하자 아무소리 못하고 돌아왔던 것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U-2기라는 극비 고공 정찰기를 만들어 전세계적으로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정찰기, 소리없는 정찰기등 여러가지의 U-2기 전설을 남겼다.

그러나 소련은 초고공을 비행하는 정찰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는 사실을 계기로 미사일 기술의 우수성을 과시하기도 했고 전투기의 고공 상승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동서냉전의 희생자라고도 할 게일리 파워즈씨에 대한 이야기를

여어 보기로 한다.

## ■ 선발된 극비 임무반

프랑스스 게일리 파워즈는 1928년 8월 17일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의 경계에 있는 시골읍에서 구두방직 아들로 태어났다. 파워즈는 소년시절 축구, 육상경기, 수영등 스포츠를 즐기는 건 강한 소년이었고 14세 때 처음으로 글라이더를 타본 뒤 하늘을 나는데 심취하여 한국전쟁 초년도인 1950년에 공군에 지원했다.

1956년 봄 파워즈 중위는 텍사스주 타이너공군기지에서 F-84 쉐더스트리크기를 타는 중견 조종사로 근무하여 비행시간 1,000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1953년에 바아바라양과 알게



되어 1년반 교제한 끝에 결혼했다.

이무렵 그가 소속했던 항공단이 해체할 예정이어서 그도 퇴역하여 민간 항공사에 자리를 구할까 생각하던 차에 항공단 사령부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거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령을 만나 최신형 특수 항공기로 고고도의 단독비행으로 특수 비밀임무를 수행하는 단신복무에 응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물론 임무의 내용 같은 것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기한은 18개월, 소속은 CIA로 되며 임무 해제 후는 공군으로 돌아 오수도 있고 퇴역하여 취업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대신 높은 보수가 지급된다고 했다.

“이 권유를 승락하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하면 지금 들은 이야기는 모두 잊어 버려야 한다.”고 다그쳤다.

미인이고 젊은 아내 바아바라와의 결혼생활에 수입이 더 필요했고 전투기 조종사라면 구미를 돋구는 고공비행의 매리트에 이끌려 그는 즉석에서 지원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선발된 우수한 조종사 12명은 뜻밖에도 민간인 앞으로 넘겨져 다시 면접시험을 치루었다. 그는 여기서 이 임무가 미 중앙정보국(CIA)의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임무가 록히드 U-2형 고고도 정찰기를 타고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에 침투하여 전략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들은 다시 엄중한 신원조사를 거쳐 뉴 멕시코주에 있는 기지로 보내져 거기서 1주일간의 혹심한 비인간적인 신체검사를 받았다. 후에 우주비행사들이 받은 것과 같은 생체 인내 시험 검사였다.

파워즈는 이들 어려운 시험 검사에 모두 합격하여 CIA에 고용된 첩보요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일단 공군으로부터는 제대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후 공군으로 돌아가면 계급과 근무기간등을 모두 공군에서 인정받고 연금에도 그렇게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봉급은 CIA를 통해 록히드사에 주어지면 록히드사로부터 공군중위의 봉급보다 4배나 많은 봉급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 근무가 끝나면 그동안 번돈으로 아내와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 결심이었다고 전해진다.

### ■ 기상관측으로 위장

미국 공군의 제식명에는 기타 잠용

기라는 뜻으로 U-2기는 시리얼 넘버까지 있지만 내용은 CIA의 예산으로 록히드사의 스킵 워크시스템에 의해 개발되었고 그 운용 또한 전적으로 CIA의 책임아래 행해졌는데 특히 소련 영공내에 침입할 때는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했다.

CIA의 전략정찰기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미공군용 고고도 기상관측과 대기 자료수집용 항공기라고 설명되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었다. 여기에는 NASA의 전신인 NACA(항공자문위원회)도 한몫하여 동 위원회가 성층권 기상자료 수집을 위하여 공군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U-2기는 미공군에서 기상정찰비행대 WRS에 소속시키고 CIA의 현지기관인 분견대라고 불렀다.

이 분견대에는 공군과 CIA요원, 그리고 록히드사와 P&W사의 기술자 및 정찰용 카메라 제작사 엘머사 직원



파워즈대위와 동기생인 U-2기 조종사팀. 뒷줄 좌측 끝이 파워즈

까지를 합친 혼성부대였다.

WRS의 지휘관은 공군대령이었고 개별 비행계획은 CIA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 운영 되었다.

### ☐ 맹훈련 후 전개

U-2기의 조종사들은 당시 미공군 조종사 가운데 젊고 우수한 전투기 조종사 가운데서 특별히 선발했다. 특히 냉정하고 침착하며 항법원조시설이 없는 적지에서 단독으로 장시간 비행해야 하는 관계로 냉정한 의지가 필요했다. 때마침 임무 종료로 개편되어 해체되는 전투비행단이 있어 거기로 전속 시킨후 데리고 왔다. 파워즈는 제대 절차중에 대위로 진급하여 이쪽으로 왔으며 그는 처음부터 해체되는 전투비행단 소속이어서 안성마춤이었다.

이들 선발된 U-2기 조종사 팀은 1기생이 6인, 2기생이 11인으로 구성되어 파워즈는 2기생으로 1956년초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단독비행의 강도 높은 맹훈련을 받았고 3기생과 합하여 총 25인 전후의 조종사가 양성되었다.

이렇게하여 최초의 조종사 팀과 10기의 U-2A기가 A분견대로 편성되어 영국으로 이동했다가 서독으로 옮겨갔다.

최초의 공산권 영공 정찰은 1956년 6월 19일에 시작되었고 소련 영공 침입은 7월 4일에 있었다. CIA는 2만m 상공을 비행하는 U-2기를 소련은 포

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소련 침입에서는 번번이 전투기들이 공격을 시도했으나 어느 전투기도 2만m의 고공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여기서 U-2기는 레이더에 의한 포착이 어렵게 검게 칠했다. 문자 그대로 흑곤새의 검은 천사라는 별명이 적합한 모습이었다.

파워즈는 7인으로 된 B분견대에 속해 9월에 터키의 공군기지에 전개하여 56년 9월말에 첫 작전 비행에 나섰다. 나머지 조종사들은 C분견대로 편성되어 일본에 전개했다.

B분견대는 터키의 기지에서 소련 남부의 흑해연안과 중앙아시아의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등을 살피는 것이 주임무였다. B분견대는 또 중동지역과 지중해 이집트등지도 작전범위로 삼아 제2차 중동전쟁 직전의 상황을 정찰했다.

당초 CIA는 소련 영공에 안심하고 침입할 수 있는 기간을 1956년 9월 이후 길어야 2년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다른 정찰수단이 없어 그대로 60년경까지 속행했다.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과 초음속 전투기의 상승 고도가 높아지는데 따라 U-2기도 엔진을 강력한 것으로 바꾸어 22,860m까지 올라가도록 성능을 향상시켰다.

1959년에는 최초의 A분견대가 해산하여 C분견대로 재배치 되고 B분견대 요원들도 모두 고용계약을 갱신했다.

이때 가족과의 영외거주가 허가되어 파워즈는 사랑하는 아내 바이바라

를 터키로 불러다 살림을 차렸다.

1960년이 되자 파워즈는 터키 기지에서 최고참이 되었고 U-2기 비행시간 500시간을 기록했다. 60년 들어서는 4개월간 소련 영공 침입은 없었다.

### ☐ 운명의 비행

1960년 4월이 되자 다시 소련 침입 비행이 시작되어 9일에 발진한 U-2기는 소련 남부의 미사일 요격실험장을 사진찍어 돌아왔다.

이어 다음 비행은 파키스탄기지를 출발하여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소련 영공에 들어가 미사일 시험발사장, 공업지대, 항구등을 정찰하고 노르웨이 기지에 착륙하는 전코스 6,000km 이상인 힘든 비행이 계획되고 이 운명의 비행이 파워즈에게 주어졌다.

파워즈가 비행임무로 부대에 대기할때는 그의 아내 바이바라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대기했다.

그의 비행은 4월 28일로 예정 되었으나 일기불순으로 연기되어 5월 1일에야 비행이 가능해졌다.

그는 이날 파키스탄 기지를 이륙하여 북서방향으로 사라져갔다.

그후 오전 8시 53분 소련내의 시페르도르프스크 상공에서 소련이 쏘아 올린 지대공 미사일에 U-2기의 꼬리부분을 맞아 비행기는 파괴되고 조종사인 파워즈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실로 운명의 비행이라고 할만하다.

소련의 후루시초프 수상은 5월 5일 최고회의에서 U-2기의 침입과 미국

첩보정찰기의 격추를 보고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민간의 NASA소속 기상관측기가 산소흡입기 고장으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아마도 그것일것이라고 정해진 스토리를 발표했다. 후 루시초프는 5월 7일 U-2기의 조종사 1인을 구속하고 있고 그로부터 첩보행위를 자백 받았다고 발표하여 미국의 체면 손상과 더불어 U-2기의 존재가 전세계에 밝혀졌다.

### 간첩죄와 명예회복

당시 U-2기에는 자폭장치가 있다고 그럴듯하게 전해지고 파워즈가 왜 자폭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억측이 보도되었었다. 그러나 나중에 판명된바에 의하면 자폭장치의 스위치를 눌러도 70초후에 정찰장치실내의 1.1kg의 폭약이 터지게 되어 있어 자폭이 아닌 증거인멸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소련측에 체포된 뒤 압수된 파워즈의 소지품 가운데는 독침을 넣어 만든 동전도 있었는데 왜 자살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있지만 독침은 자살용이기 보다는 고문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때의 예비품으로 해석되고 있다.

소련당국은 파워즈를 체포하여 국제간첩이기 보다는 포로로 대우한것 같다.

그해 8월 17일 파워즈의 31세 생일날에 모스크바에서 공개재판이 열렸다. 소련은 뜻밖에도 파워즈의 양친과 아내의 면회와 재판 방청을 허용했고



모스크바 법정에선 파워즈씨

재판이 2일만에 끝난 뒤 가족과의 포옹과 편지쓰기도 허용했다. 형량은 금고 10년형이 선고되었다. 파워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으나 바야바라하는 한번도 답장을 주지 않았으며 그후 이혼하고 말았다.

그의 형집행은 2년 미만으로 끝났다. 미국이 1957년에 잡아 30년의 징역형을 언도한 KGB의 아벨대령과 교환하게 되어 1962년 2월 10일 동서 베를린의 경계에 있는 다리 위에서 교환되었다.

미국에 돌아온 파워즈는 CIA의 철저한 심문을 받은 뒤 록히드사에 고용되는 신세가 되었다. 록히드사의 게일리 존슨이 페를 끼친 대상으로 그를 U-2기의 시험비행 기술자로 고용하여 미국 시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로부터 보호해 생계를 보장했다. 그러나 록히드사와 CIA당국은 그에게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도록 엄격한 함구령을 내렸고 귀국후 바야바라와 1년뒤에 이혼하고 아무도 모르게 재혼했다.

1970년에 그는 회고록 'Operation Over Flight'을 출판한 뒤 록히드사로 부터 해고되었다.

그는 약 2년간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로스엔젤레스의 라디오 방송국에 세스나기 조종사겸 기자로 취직했다가 1976년에는 KNBC TV에 헬리콥터 조종사겸 기자로 옮겼으나 1년도 채 안된 1971년 8월 1일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산불 현장을 취재, 현장에서 방송한 뒤 기체에 연료가 떨어져 헬기와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47년의 짧은 일생이었다.

그의 후처인 수우 파워즈는 망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맹렬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파워즈는 아령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고 사후 10년이 지난 1987년에 공군으로부터 수훈비행십자훈장을 받았다. 또 그의 유품들은 1993년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소장 되었다.

파워즈는 누구였는가?

그는 무슨 잘못을 했는가.

국가란 무엇이며 냉전이나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력한 반문을 요하는 그의 일생은 여러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아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게 되었다.

그의 최후는 비행 조종사로서 타당한 죽음으로 평가 되면 다행이 아닐까?

누구도 파워즈를 비판하거나 욕하지 못할 것이며 또 유별난 용사나 영웅은 더욱 아닌 것이다.